

### 8월 30일(월) / 겔 1-3

▶ **내용요약** :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이 임했다. 1장에 의하면 그날 강가에 거하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때 에스겔은 병거 환상과 보좌의 형상을 보았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일어서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후, 한 두루마리 책을 그에게 주셨다. 이어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하셨다. 이에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다.

▶ **질문**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은? (2-3장)  
▶ **생각하기** : 파수꾼은 성을 지키기 위해 경계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잠을 자거나 한 눈을 팔면, 성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깨우치도록 명령하셨다. 파수꾼인 에스겔의 소리를 들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적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 9월 2일(목) / 겔 10-12

▶ **내용요약** : 에스겔 10장에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그룹들과 바퀴들의 형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목격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곳에 더 이상 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성전을 떠나가셨다.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전 동문으로 옮기셨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악한 꾀를 꾸미는 스물다섯 명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셨다. 즉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명하셨던 것이다. 이후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이에 에스겔은 두 가지 상징적 행위 즉, 포로처럼 끌려가는 것과 떨면서 음식과 물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

▶ **질문**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두 가지 행위는? (12장)  
▶ **생각하기** : 에스겔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위로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다. 이는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 9월 5일(일) / 겔 36-38

▶ **내용요약** :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예언하도록 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롱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산들은 가지를 낼 것이고,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므로써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다. 이후 3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한

### 8월 31일(화) / 겔 4-6

▶ **내용요약** :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것을 에워싸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징조로 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포위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 주신 것이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은 후 그것을 저울에 달게 하셨다. 그리고 삼분의 일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삼분의 일은 칼로 치고, 삼분의 일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행동이었다. 또한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퍼져있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질문** : 징조를 위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깎으라고 하신 것은? (5장)  
▶ **생각하기** : 에스겔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마치 행위 예술을 하듯, 그는 여러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설교 또한 설교단에서 내려온 순간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이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9월 3일(금) / 겔 13-17

▶ **내용요약** : 에스겔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었다. 한편 1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이후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을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을 딸깍과 같이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 또한 16장에서는 가증스러운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을 고발하시면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다. 또한 17장에서는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장차 직면하게 될 일들을 보여주셨다.

▶ **질문** :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가? (16장)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 예언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속임을 당하고 죄의 길로 나아간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듣기에만 좋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자.

골짜기로 에스겔을 이끄시고,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게 하셨다. 그러자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다.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인 곡을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셨다. 곡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꾀를 내었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사실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곡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것이다.

### 9월 1일(수) / 겔 7-9

▶ **내용요약** : 에스겔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평안과 안전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다. 한편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성전으로 이끄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상 숭배를 보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면서, 분노로 그들의 행위를 갚으실 것이라고 하셨다. 이어서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실 것이라고 하셨다. 놀라운 것은 심판의 시작이 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심판의 현장이었다.

▶ **질문** :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끄신 곳은? (8장)  
▶ **생각하기** : 예루살렘은 우상숭배로 인해 성전의 기능과 거룩함을 상실하고 오히려 심판과 진노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 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외모나 직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자.

### 9월 4일(토) / 겔 18-20

▶ **내용요약** :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신 포도를 먹은 아버지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더 이상 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19-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재확인시키셨다. 특별히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한 애가를 부르게 하셨다. 그만큼 그들의 심판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또한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범했던 반복적인 죄를 고발하셨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 **질문**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 무엇을 지어서 부르라고 하셨는가? (19장)

▶ **생각하기** : 우리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똑같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이유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의 길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 **질문** : 아래 빈칸에 각각 들어갈 말을 쓰시오. (36장)  
“또 ( )을 너희 속에 두고 ( )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므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며 순종하게 하신다. 결국 구원은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자!